

우성타이어

부산공장, 노사협조
모범업체 선정

'89년 12월말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은 6·29이후 격심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분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89년도 노사협조 모범업체로 선정되어 노동부장관 감사패를 부산지방 노동청장을 통해 전수하였다.

시무식 거행

(주)우성산업은 경오년 새해를 맞아 '90년대를 여는 시무식을 본사 9층 강당에서 우성그룹 전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지난 1월 3일 거행하였다.

이날 최주호 총회장은 훈시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은 '誠'이며,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誠'을 다하여 종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 회장의 당대에서는 '一誠'을, 사

장을 비롯한 전임직원은 '二誠'을 생활신조로 삼아 맡은바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최승진 사장님께서 신년사에서 '90년대의 그룹 비전과 경영방침을 제시하신 후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의 시무식에서는 우수 고별사원에 대한 표창식도 있었는데, 생산부 공무과 강상형 사우가 총회장님의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8명의 사우가 사장님의 표창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무사와 번영을 위한
기원행사 실시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에서는 연례행사인 공장의



무사와 끝없는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가 지난해 11월 26일 공장장 및 전 사우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사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마음으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행사가 끝난 후 푸짐한 회식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단합대회를 가졌다.

사내 친선 바둑대회 개최

(주)우성산업 부산 타이어공장 기우회는 사원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사내 친선 바둑대회를 동호인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개최하였다.

참가 인원이 A, B 그룹으로 편성되어 전 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장 휴게실에서 치루어졌는데, 그 어느때보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진 이날의 친선 바둑대회에서는 비상계획과의 정순도 사원과 강춘성 사원이 A, B 그룹의 각조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푸짐한 부상도 함께 차지하였다.

한국타이어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

'89년도 경영전략 세미나가 흥건회 사장을 비롯한 임원,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양나일론 연수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사경영 분석, '90년도 경영전망, 연세대 송자 교수의 2000년대 경제전망(산업구조) 및 마케팅 교육, MIS 특강 등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

캐나다 거래선 사장 초청, 방문

'89 거래선 초청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의 Remington Tire사 사장 Mr. John D. Cosco, Southwestern Tire사 사장 Mr. Billy Kennedy가 부부동반으로 당사를 방문하였다.

Mr. Cosco 사장과 Mr. Kennedy 사장은 캐나다 Alberta주와 Ontario주에서 당사의 HANKOOK BRAND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Remington Tire사는 '89년에 가장 판매신

장을 증대한 거래선이기도 하다.

시간대별 목표달성률 그래프 관리체계 도입

각조의 작업종료후에야 실적이 종합 집계됨으로써 신속한 대책수립이 지연됐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대별(M/C별, LINE별) 목표달성률 그래프 관리체계를 도입, 실시중에 있다. 새로 도입된 관리방법은 U/F, 불량 등은 OA 담당으로부터 매시간 테이터를 접수하여 반장이 생산실적과 Line별로 그래프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직 사원 해외연수 실시

현장직 사원의 건전한 직업관 정립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일본지역)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현장반장 사원 40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누어 5박 6일동안 실시되었다. 12월 2일과 9일에 각각 결단식을 갖고 출발한 이번 해외연수단은 직업관 정립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세미나와 선진기업체 방문을 통해 건전한 직업관과 주인의식 고취, 생산원가 절감 및 품질개선활동 등에 대한 사례연

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해외연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장주임 및 반장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유경험자 및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는 연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포장지 자동기계 도입, 시험가동중

부산하치장에 포장지 자동기계 1대가 도입되어 시험가동중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가동된 이 자동기계는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전면 교체될 것에 대비, 시험중인 것으로 앞으로 이 기계가 정착되면 하치장의 작업여건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임조회의실 신축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업무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소집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회합장소인 분임조회의실이 신축되었다. 이 분임조회의실은 4개 분임조가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35평 규모로서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시청각교재(VTR, TV, O.H.P, 슬라이드, 각종 VTR Tape<TPM, QC, 5J>), 슬라이드 교재가 갖추어져 있다.

금호타이어

시무식 거행

대망의 90년도 첫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이 1월 3일, 각 사업장별로 전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박정구 사장의 신년사를 통해 「90년 경영방침」이 전달되었다.

'90년도 경영방침 보고회 열려

'90년도 경영방침보고회가 1월 20일 본사 7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박정구 사장을 비롯한 전중역 및 부서장 5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방침보고회는 기획실을 필두로 지난해 방침추진실적과 금년도 경영방침에 따른 각 부서별 중점관리항목 및 세부추진계획이 보고되었다.

종합후생동 설치,공사 시작

지난해 12월 11일부터 4조 3교대가 실시됨에 따라 사원·가족의 여가선용을 돕기 위한 종합후생동이 운영된다.

구본관 건물을 전체적으로 개조하여 설치될 종합후생동에는 독서실, 체육실, 탁구장, 씨클룸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속병원과 치과병원,

구관장, 마을금고 등을 이전, 증설할 계획이다.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공사시간을 거쳐 완공될 이 종합후생동은 4월초에 개관할 예정이며, 사원 및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사원 교양강좌 실시

사원들의 건전한 의식전환과 기업의식 고취를 위한 전사원 교양강좌가 1월 17일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강좌에서는 제1차로 회사의 장단기 경영방침을 설명회가 양희수 관리담당이사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제2차로 나장운 교수의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주제강연이 펼쳐졌다.

그룹 OA 추진방향 주제 강연

사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의식고취를 위한 OA 추진교육이 지난해 12월 22일 연구소 대강당에서 실시되었다.

과장급 이상 전 간부사원과 각 부과 OA담당자 등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금호그룹 OA 추진방향'에 대해 강의되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홍종호(한국 IBM 부장, 당 그룹 OA 담당 매니저)씨는 일반적인

OA개요, 산업별 OA 접근방법, 각 계열사의 공통적인 OA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 사무활동 분석,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등 우리 그룹이 추진해 나가야할 전반적인 OA방향을 제시했다.

제35회 QCC 발표대회 거북이A 최우수상 수상

제35회 사내 QC분임조 발표대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대강당에서 현장분임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5개분임조가 출전, 영예의 대상을 놓고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제조1부 2과의 거북이A 분임조(분임장: 정하진)가 「트림하이트 불량감소」 테마 해결을 발표해 최우수 분임조로 선정되었다.

우수상은 제조2부 1과 달성E 분임조가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대망J(제조2부 3과), 평화(설비2과), 청학A(제1부 4과) 분임조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번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던 엄지분임조에게 특별상을 수여, 부상으로 최우수 분임조에게 지급하는 상당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 참가한 분임장, 서기에게는 손목시계 1점씩이 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 격려했다.